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 2부 · 소극적 표지 3: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신앙감정론』 제2부(신앙감정이 은혜로운지 아닌지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세 번째 소극적 표지, 부흥과개혁사 2005 정성욱 역, 인쇄 205~208쪽

##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명제를 세운다. 신앙 이야기를 유창하고 뜨겁게, 많이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은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이어 정반대의 두 오류를 짚는다. 하나는 말 많은 신자를 곧바로 위선자로 모는 편견이고, 다른 하나는 말문이 트인 것을 곧바로 거듭남의 증거로 믿는 성급함이다. 그는 이런 착각이 성경 대신 자기 경험과 감각을 기준으로 삼는 데서 나온다고 진단한다. 말은 나무의 '잎'일 뿐이고,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을 말하므로 거룩한 감정에서도 거룩하지 못한 감정에서도 말이 넘칠 수 있다. 세례 요한과 예수를 열렬히 따랐던 군중이 그 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오히려 나쁜 징조일 때가 많다고 말한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물 없는 구름'에 비유하고, 거짓 믿음은 본래 드러내고 과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 🪪 표지 카드

표지 3(소극): 신앙에 대해 술술, 뜨겁게, 많이 말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감정이 은혜인지 아닌지 어느 쪽으로도 알 수 없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온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채운 것이 거룩한 감정일 수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감정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의 양과 열기는 “이 사람이 신앙적인 일에 크게 감동했다”는 것까지만 보여 준다. 그 감동이 은혜에서 왔는지는 보여 주지 못한다. 성경은 말(잎)이 아니라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라고 가르친다.

## 📜 절별 정리

### 📜 1. 명제와 정반대의 두 오류

에드워즈는 이 표지가 '어느 쪽으로도' 증거가 아니라고 못 박는다.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실수한다. 어떤 사람은 신앙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그것만으로 바리새인이나 잘난 체하는 위선자로 정죄한다. 다른 사람은 그 반대로, 말이 유창해지고 뜨거워진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큰 증거로 여긴다. 이들은 “전에는 말이 느리더니 이제 입이 열렸네, 샘물 솟듯 찬양하네” 하며 감탄한다. 진지하고 감정 실린 말투까지 더해지면 이들은 구원의 역사가 틀림없다고 단정한다. 에드워즈는 두 쪽 모두 틀렸다고 본다. 말이 많다는 것은 정죄의 근거도, 확증의 근거도 아니다.

1. 말의 유창함은 어느 쪽 증거도 아니다
2. 말 많다고 위선자라 정죄하는 것도 오류
3. 입이 트였다고 거듭났다 믿는 것도 오류
4. 진지한 말투도 구원의 보증이 아니다

> **고린도후서 5:17**
>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의 배경. 에드워즈는 사람들이 이 변화를 말솜씨로 확인하려는 것을 경계한다(본문에 장절 표기는 없음)
>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 2. 왜 이런 착각이 생기는가: 성경 대신 자기 기준

에드워즈는 이런 실수의 원인을 두 가지로 든다. 첫째, 판단력이 흐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여러 사건에서 이미 충분히 본 일이다. 둘째, 성경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원칙으로 삼고 자기 지혜와 분별력을 믿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준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단락의 요점이다.

1. 착각의 원인은 흐린 판단과 경험 부족
2. 성경 대신 내 생각을 원칙으로 삼음
3. 성경엔 분별 원리가 가득하다
4. 하지만 '말 잘함' 원리는 성경에 없다

> **(이 단락에는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에드워즈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원리가 없다”는 부재 논증을 편다

## 📜 3. 말은 '입과 혀의 믿음', 나무의 잎일 뿐이다

유창한 신앙 이야기는 그 자체로는 입과 혀에 달린 믿음일 뿐이다. 에드워즈는 이를 성경이 말하는 '나뭇잎'에 비유한다. 나무에 잎이 없을 수는 없다. 참 신자에게도 신앙의 말은 자연스럽게 있다. 그러나 잎이 무성하다는 것이 좋은 나무라는 증거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성경이 나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열매다. 이 비유는 장 전체를 꿰는 그림이 되고, 뒤에서 “잎이 너무 무성한 나무”로 다시 나온다.

1. 말은 입과 혀에 달린 믿음
2. 성경의 비유로는 '잎'에 해당
3. 잎이 없을 순 없지만 증거는 아니다
4. 나무를 판단하는 것은 열매다

> **마가복음 11:13**
>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가 가리키는 장면(에드워즈는 장절을 적지 않았다)
>
>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원칙. 잎과 열매를 대비시키는 배경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요한일서 3:18**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입과 혀의 믿음'이라는 표현의 성경적 배경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 📜 4. 말의 원천은 마음, 그러나 마음에 쌓인 것은 둘 중 하나

말이 많고 뜨거운 이유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거룩한 감정이 가득해도 말이 넘치고, 거룩하지 못한 감정이 가득해도 똑같이 말이 넘친다. 어떤 감정이든 강해지면 사람은 그 체험을 많이,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말한다. 이것이 감정의 본질이다. 따라서 뜨거운 신앙 이야기가 증명하는 것은 “그가 신앙적인 일에 크게 감동받았다”는 것까지다. 앞 장들에서 보았듯 그 감동은 참된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

에드워즈는 두 예를 든다.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은 한동안 세례 요한의 설교와 세례를 진지하게 여겼고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했다. 예수를 따르던 군중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고,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 밤낮으로 따르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잊었으며, 광야에서 사흘을 굶으며 들었다.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외치기도 했다. 그런데 결국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떠났다.

1.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을 말한다
2. 거룩한 감정도, 아닌 감정도 말이 된다
3. 강한 감정은 원래 말을 많게 한다
4. 말은 '감동받았음'까지만 증명한다
5. 열광하던 군중도 결국 대부분 떠났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말의 원천이 마음이라는 논증의 기둥(누가복음 6:45와 같은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요한복음 5:35**

사람들이 요한의 빛 안에서 '잠시' 즐거워했다는 장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마태복음 3:5**

온 유대와 요단 사방이 요한에게 나아온 큰 소동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마태복음 15:32**

군중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예수를 따른 장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7:46**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 열정적 반응의 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요한복음 6:66**

많은 제자가 떠나갔다. 뜨거운 반응이 끝까지 가지 못한 결말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위 구절들은 에드워즈가 장면으로 묘사하고 장절은 적지 않은 것이다. 해당 성경 본문을 대응시킨 것이다.)

### 📜 5. 말이 너무 많은 것은 오히려 나쁜 징조일 때가 많다

에드워즈는 한 걸음 더 나간다. 자기 체험을 지나치게 많이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좋은 징조보다 나쁜 징조인 경우가 많다. 잎이 지나치게 무성한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 물을 잔뜩 머금은 것처럼 보이는 구름도 바람이 너무 세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한다. 성령께서는 삶의 열매 없이 입으로만 열심인 사람들을 바로 이 비유로 여러 번 묘사하신다. 잠언은 선물을 준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를 비 없는 구름과 바람에 비유한다. 유다는 교회에 몰래 들어와 큰 믿음이 있는 척해서 한동안 의심받지 않던 자들을 바람에 불려 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부른다. 베드로는 같은 자들을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부른다.

1. 과도한 체험담은 나쁜 징조일 때가 많다
2. 잎이 너무 무성하면 열매가 적다
3. 바람 센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
4. 성경은 이를 '물 없는 구름'이라 부른다

> **잠언 25:14**
>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요란한 말과 빈 실속의 대비
>
>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 **유다서 1:12**
> 교회에 숨어든 자들은 물 없는 구름. 큰 믿음을 과시해 한동안 의심받지 않은 위선자
>
>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그림을 겹쳐 확증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잎이 지나치게 무성한 나무는 좀처럼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 📜 6. 거짓 감정은 더 요란하게 드러난다

마지막 논증은 이렇다. 감정의 세기가 같다면 거짓 감정이 참된 감정보다 겉으로 더 심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거짓 믿음의 본질 자체가 보여 주고 과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현상의 증거라고 말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참된 은혜는 꼭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은밀한 면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래서 '얼마나 드러나느냐'로 신앙의 진위를 재면 오히려 거짓 쪽에 점수를 더 주게 될 위험이 있다.

1. 같은 세기면 거짓 감정이 더 드러난다
2. 거짓 믿음의 본질은 과시다
3. 바리새인이 그 대표적 증거
4. 드러남으로 재면 거짓에 점수를 준다

**마태복음 6:2**

바리새적 위선자가 나팔 불며 자기 의를 드러냄. '과시하는 거짓 믿음'의 성경적 그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3:5**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바리새인 예의 배경

>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 **마태복음 6:6**
>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참 신앙의 은밀함과 대비
>
>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에드워즈는 이 단락에서 '바리새인'만 언급한다. 위 구절은 그 언급이 가리키는 성경 본문을 대응시킨 것이다.)

**“거짓 믿음의 본질이 바로 겉으로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오해와 반론

## 📖 용어

**신앙감정(affection)**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이 끌리거나 싫어하며 움직이는 깊은 내적 반응. 이 책 전체가 이것이 참 은혜에서 왔는지를 묻는다.

**소극적 표지**
은혜의 증거도, 은혜 없음의 증거도 될 수 없어서 판단에서 빼야 하는 겉모습. 제2부가 다룬다.

**은혜로운 감정**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생긴 참된 신앙감정.

**새로운 피조물**

**위선자**

참 은혜 없이 신앙의 겉모습을 가진 사람. 남을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는 경우가 많다.

**바리새인**

예수 시대에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을 중시하던 무리. 이 장에서는 '과시하는 거짓 믿음'의 대표다.

**입과 혀의 믿음**

마음과 삶의 변화 없이 말로만 표현되는 신앙.

**열매**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룩한 행실. 잎(말)과 대비되는 참된 판단 기준이다.

## ⚖️ 거짓과 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신앙 이야기를 술술, 뜨겁게, 많이 하는 것은 은혜의 증거도, 위선의 증거도 아니다.
-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을 말하지만, 그 마음을 채운 감정은 거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말은 나무의 잎이다. 성경은 잎이 아니라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라고 한다.
- 지나친 말과 과시는 오히려 경계할 징조다. 거짓 믿음은 본래 드러나기를 좋아한다.
- 분별의 기준은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한다.

- 신앙감정론 6편 · 말이 많아지고 저절로 솟는 감정 · 신앙 이야기와 자가 생산 (표지 3·4)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